

## 한국 영재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박 경 빈

가천대학교

본 연구는 영재교육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요 연구 주제들을 도출해 보기 위하여 영재교육 관련 연구 논문들을 「영재교육연구」, 등재지 게재 논문,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을 분석하였다. 「영재교육연구」는 총 228개 논문에서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을 분석하였다. 「영재교육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중학생, 초등학생, 교사가 많았으며 연구 주제로는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지·정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방법은 질문지·설문지, 실험적 방법, 사례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등재지 게재 논문은 총 754편으로 연구 주제는 인지, 교육과정·프로그램, 정서 순으로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관련 박사학위논문은 총 132편으로 역시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고, 논문의 주제는 교육과정·프로그램, 판별, 정서, 인지 순으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관련 연구는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선포된 이후로 논문 수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연구 주제에만 연구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연구」, 등재지 게재 논문, 박사학위논문 모두에서 프로그램 개발, 효과검증을 주제로 한 연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수·과학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재교육연구」의 경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연구 방법 역시 질문·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질적 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영재, 영재교육, 연구 경향, 연구 방법, 연구 주제, 연구 대상, 한국영재학회, 「영재교육 연구」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재와 영재교육분야에서의 연구 활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

교신저자: 박경빈(kbpark@gachon.ac.kr)

\*이 논문은 2012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13-R006).

흥법이 통과된지 이제 10년을 넘어가고 있다. 영재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하고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보고서」를 근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96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영재교육 시범학교와 시, 도 교육청에 영재반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후에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영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2002년부터 매 5년마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2 현재 제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확립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시도와 더불어 영재교육에 대한 실체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방향이 설정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이 설립된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이미 오래전부터 영재교육이 확립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미국의 영재교육 관련 연구 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National Research Center Advisory Council는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영재교육과 관련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와 해당 주정부의 교육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NRCAC List of Prioritized Recommendations를 발표했다(<표 1> 참조).

<표 1> NRCAC List of Prioritized Recommendations

1.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2. 일반 교육과정의 수정
3. 교사 교육
4. 집단 교육의 효과
4. 개별학습과 교육과정
6. 동기
7.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8. 문화/지역사회 강화
9. 정책
10. a. 평가자로서의 교사  
b. 특수요구에 의한 집단 구성
11. 학생 특성, 환경, 훈련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 선택권
12. 과정 대 내용
13. 측정에서 연구의 활용
14. 영재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15. 영재 집단이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
16. 미성취
17. 성공과 관련된 학생 특성
18. 협동학습
19.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

이 표에 제시된 주제들은 영재교육에서 연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 주제들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이 고루 반영되어 이 주제들을 근간으로 차후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국 영재학회(NAGC)는 영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하여 Position Papers 를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발표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NAGC – Position Papers

1. 속진
2. 정서적 요구(영재들의 사회·정서적 발달 양육)
3. 영재판별에서 측정도구
4. 영재교육과 일반 교육의 협조
5. 영재교육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들
6. 협동학습
7. 교과과정과 지도의 변별화
8. 유아교육
9. 예술교육
10. GLBT(gay, lesbian, bisexual, transgender)에게 적합한 영재교육
11. 대학원에서의 영재교육
12. 모듈활동
13. 월반한 학생들의 성취발달
14. 중복된 재능과 학습장애 학생들
15. 문화·언어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판별교육
16. NAGC-NMSA의 국립 중등학교 연합 position statement
17. 영재학생의 교육 기회 권한
18. 교사 교육 프로그램
19. 새천년에서 영재의 재정의
20. 중재(intervention)
21. 양면특수아(Twice exceptional)
22. 영재판별에서 WISC-IV의 활용

이렇게 미국에서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다 양한 영역에서 영재교육을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영재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연구도 증가하고 있 다. 무엇보다 영재교육 분야를 어우르는 학회와 학술지의 탄생은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전문 성과 열정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분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학문 분야들과 비교하여 연구물들이 어느 정도 해당 분야에 기여하 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영재교육법이 처음 통과된 2000년도에 비해 현재 는 영재교육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동안 영

재교육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요 연구 주제들을 도출해 보는 것은 영재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의미있는 한 획이 될 것이다.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된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학술지는 「영재교육연구」가 있다. 「영재교육연구」는 1992년에 처음 발행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2006년에 등재 후보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등재지로서 영재교육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 활동들을 세상에 알리고 이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영재교육관련 학술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자의 길로 들어서는 전문가들의 관심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재교육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재교육 관련 등재지인 「영재교육연구」와 다른 학술 등재지에 발표된 영재교육 관련 논문, 그리고 영재교육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관심과 흐름을 알아보고 향후 연구주제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된 현재, 또 다른 영재교육 분야 학술지인 「영재와 영재교육」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연구한 박사 학위 논문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영재학회에서 2006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발행한 「영재교육연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영재’와 ‘영재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결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영재·영재교육관련 논문, 754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박사학위논문 역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영재’와 ‘영재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132개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가. 「영재교육연구」

「영재교육연구」는 2006년 등재후보가 되었고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영재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 기간의 총 논문 수는 228편이다(<표 3> 참조).

<표 3> 「영재교육연구」 연도별 논문 수

연도	논문 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06		5	5			10
2007		9	6	7		22
2008		6	7	11		24
2009		9	7	13		29
2010		15	19	19		53
2011		13	17	10	13	53
2012		10	14	13		37
합계						228

나. 등재 학술지 영재관련 논문

영재 관련 학술지 논문은 한국학술연구재단 등재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초로 영재 관련 논문이 게재된 시기는 1983년 1편을 시작으로 하여 1999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다. 2011년에는 93편이 게재되는 등 2003년 이후부터 매년 평균 60편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수학교육논문집」, 「초등과학교육」, 「교육심리연구」 등에 실렸으며 그 분포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등재 학술지 목록

학술지명	논문 수	학술지명	논문 수
한국과학교육학회지	82	한국무용학회지	6
수학교육논문집	77	교육과정연구	6
초등과학교육	49	교육과학연구	6
教育心理研究	32	음악교육연구	6
학교수학	31	한국교육	6
한국생물교육학회지	24	상담학연구	5
韓國學校數學會論文集	23	한국초등국어교육	5
韓國地球科學會誌	22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5
수학교육학연구	22	한국영유아보육학	5
중등교육연구	20	영어영문학연구	4
수학교육	19	비교교육연구	4
아동교육	19	수산해양교육연구	4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9	교육평가연구	4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7	정서행동장애연구	4
초등교육연구	16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4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	한국초등교육학회지	4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	실과교육연구	3
教育學研究	11	교원교육	3
美術教育論叢	11	교육문제연구	3
아시아교육연구	11	교육사상연구	3
아동학회지	10	교육행정학연구	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	교육원리연구	3
교육방법연구	9	국어교육	3
열린교육연구	9	무용예술학연구	3
청소년학연구	9	미술교육연구논총	3
한국교원교육연구	9	열린유아교육연구	3
교과교육학연구	8	인간발달연구	2
이화음악논집	8	교육종합연구	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	교육철학	2
대한가정학회지	7	국어교육연구	2
한국교육학연구	7		

다. 영재관련 박사학위논문

영재관련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1998년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 10월 현재까지 총 132 편의 논문이 나왔다. 특이한 점은 2003년 8편을 시작으로 하여 2007년을 제외하면 2012년 10월 현재 <표 5>와 같이 15편으로 매년 10편 이상의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표 5> 영재관련 박사학위논문 연도별 논문 수

연도	논문 수	연도	논문 수
1998	1	2006	14
2000	1	2007	5
2001	2	2008	18
2002	3	2009	12
2003	8	2010	16
2004	7	2011	14
2005	16	2012	15
		합계	132

2. 자료 분석

해당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 Dai, Swanson과 Cheng(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표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표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논문 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류표

분 류	내 용
연구대상	1.대학생 2.고등학생 3.중학생 4.초등학생 5.초·중등 6.유아 7.학부모 8.교사 9.전문가 10.문헌 11. 대학생·중등 12.기타
연구주제	1.수학·과학 2.언어·예술 3.발명·정보 4.정서 5.창의성 6.인지 7.판별 8.진로 9.교육환경/프로그램 10.영재교사 11.정책 12.멘토십 13.기타
연구방법	1.기술적 2.실험적 3.질문지/설문지 4.사례 5.인터뷰 6.관찰 7.자료분석 8.기타

이와 같이 분류하여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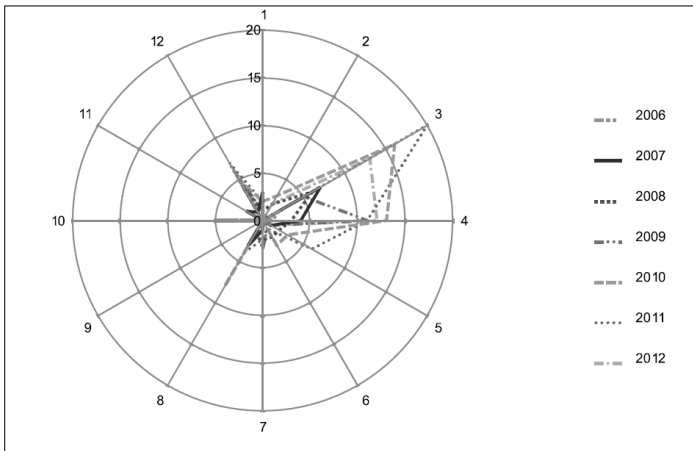
### III. 연구 결과

#### 1. 영재교육연구

「영재교육연구」는 1992년 처음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총 42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06년 등재후보 과정을 거쳐 2009년 등재지로 지정된 현재까지 총 228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들에서 연구한 대상,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방법을 분석하였다. 먼저 「영재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대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12개의 기준(<표 6>참조)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연구 대상 분포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06	1		2	1				1		5			10
2007	3		7	4	1		1	3			2	1	22
2008	1	2	6	3	2	2	2	2				4	24
2009	1		5	11	1	1	3	1				6	29
2010	2	3	16	13	3	3		8				5	53
2011	2		20	11	6	1	2	4				7	53
2012		2	13	12	1		1	3				5	37
합계	10	6	68	55	14	7	9	22		5	2	27	228



[그림 1] 연구 대상별 연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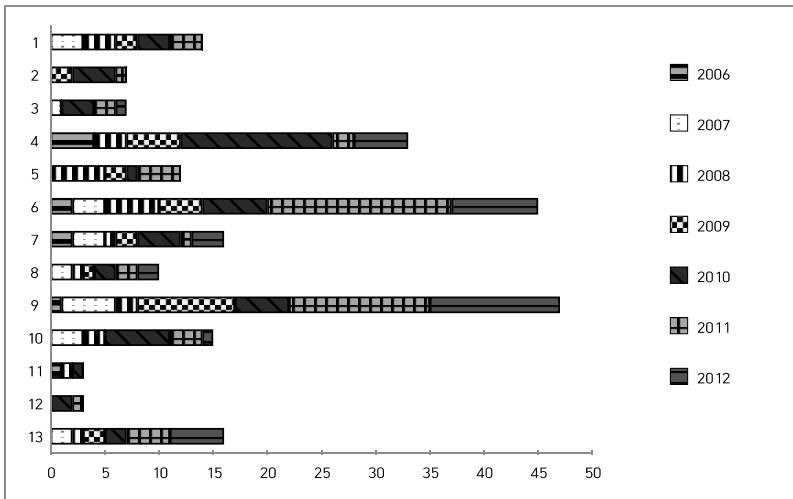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은 중학생, 초등학생, 교사 순으로 대상을 많이 연구하였다. 여기서 연구 대상 분류 '5. 초·중등' 항목은 연구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등

시에 연구된 논문으로, 한 개의 논문이 동시에 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따로 분류하였으나 내용측면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포함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연구 대상으로는 문헌연구, 여성·미성취 등의 소외영재, 일간지 분석, 센터/교육원의 선발과정을 조사하는 연구 등이 있다.

다음은 「영재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주제는 13개 기준(<표 6>참조)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2006				4		2	2		1		1			10
2007	3		1			3	3	2	5	3			2	23
2008	3			3	5	5	1	1	2	2	1		1	20
2009	2	2		5	2	4	2	1	9				2	27
2010	3	4	3	14	1	6	4	2	5	6	1	2	2	51
2011	3	1	2	2	4	17	1	2	13	3		1	4	49
2012			1	5		8	3	2	12	1			5	32
합계	14	7	7	33	12	45	16	10	47	15	3	3	16	228



[그림 2]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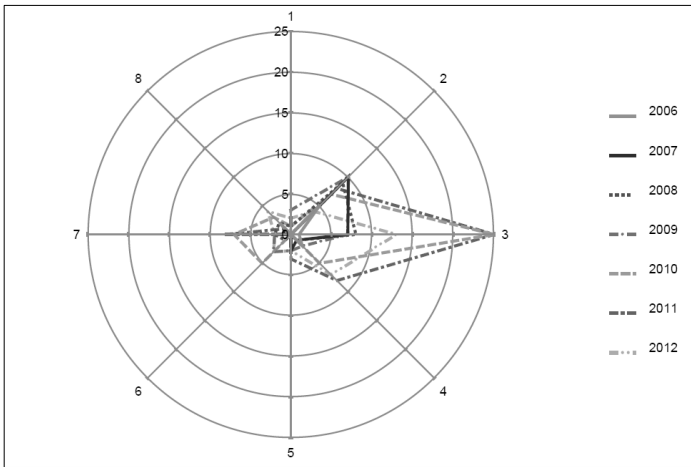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듯이 연구 주제를 보면 교육과정/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재학생들의 인지, 정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영재판별, 영재교사, 수학/과학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기타 항목으로 과학자에 대한 인식, 부모지원, 뇌파분석, 인터넷 과몰입, 외국의 영재코디네이터 개념과 같은 주제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은 8개의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

	1	2	3	4	5	6	7	8	합계
2006		5	1	2				2	10
2007		10	7	1	2		1	1	22
2008	1	9	8	1		1	2	2	24
2009	3	10	7	2	2	3	2		29
2010	1	7	25	5		5	7	3	53
2011		8	25	8	3		8	1	53
2012	2	4	13	7	2	3	2	4	37
합계	7	53	86	26	9	12	22	13	228



[그림 3] 연도별 연구 방법 분포

[그림 3]에서 보듯이 「영재교육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문/설문지 연구와 실험연구, 사례분석, 자료분석 순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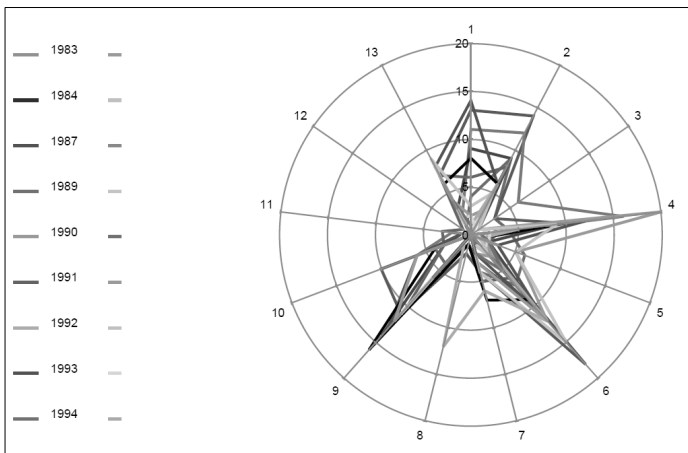
## 2. 등재 학술지 영재관련 논문

영재교육관련 연구가 등재지에 처음 게재된 것은 1983년에 1편이 있었고, 그 이후 1985, 1986, 1988년을 제외하고 1~4편 정도의 영재관련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후 1999년에 21편으로 급증하였고,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선포된 이후 2003년부터 급증하여 한해 평균 66편씩 게재되어 총 754편이 게재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10>은 등재지 논문의 연도별 게재 횟수와 논문을 주제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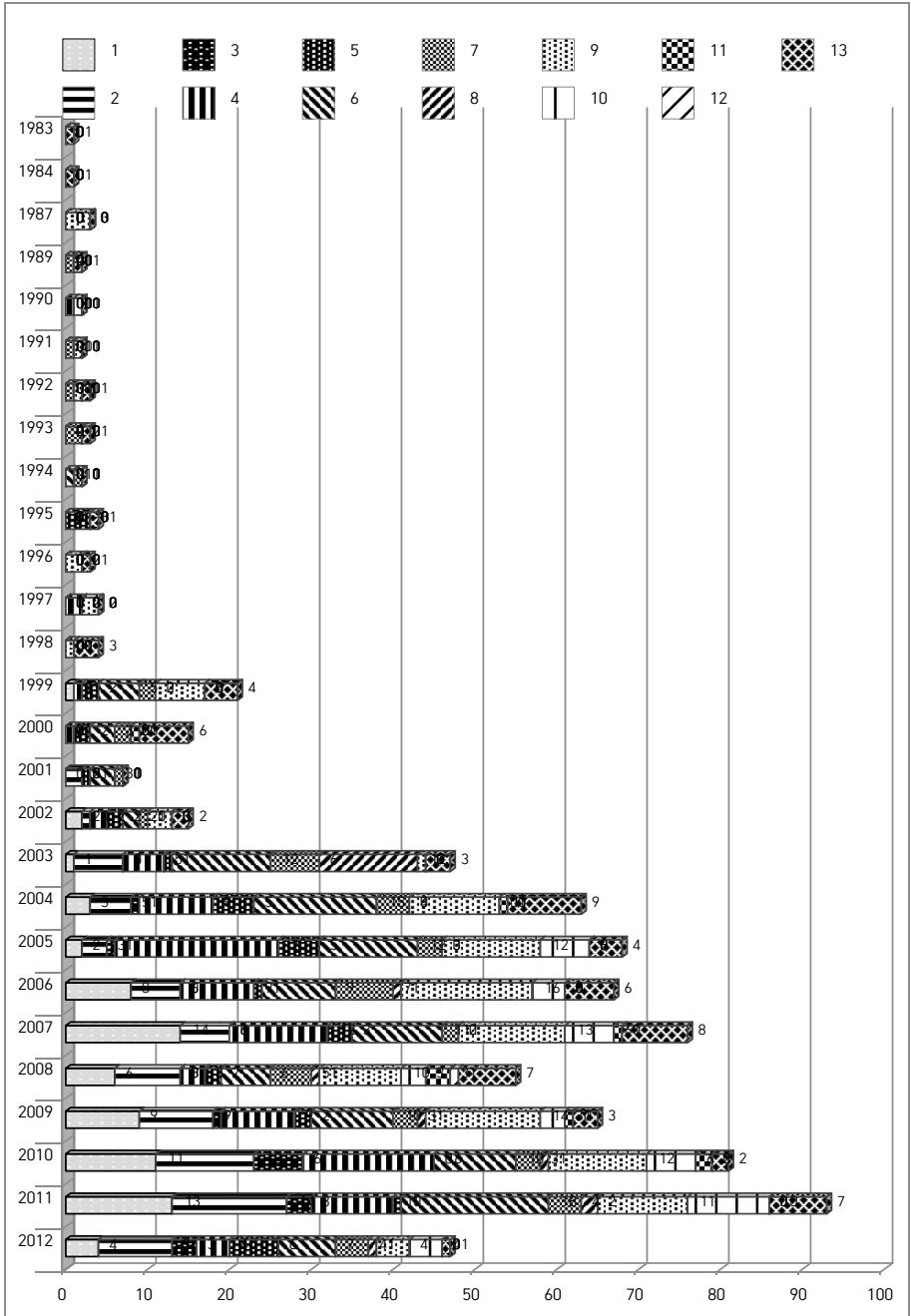
<표 10> 등재지 논문의 연도별 주제별 분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1983													1	1
1984													1	1
1987									3					3
1989							1						1	2
1990				1						1				2
1991							1		1					2
1992							1		1				1	3
1993							2						1	3
1994						1	1							2
1995					3								1	4
1996									2				1	3
1997				2					2					4
1998									1				3	4
1999	1			1	2	5	2		6				4	21
2000				1	2	3	2					1	6	15
2001		2			1	3	1							7
2002	2	1		2	2	2	1		3				2	15
2003	1	6		5	1	12	6	12	1				3	47
2004	3	5	1	9	5	15	4		11		1		9	63
2005	2	3	1	20	5	12	3		12	6			4	68
2006	8	6		9	1	9	7	1	16	4			6	67
2007	14	6		12	3	11	2		13	6	1		8	76
2008	6	8		3	2	6	5	1	10	3	3	1	7	55
2009	9	9	1	9	2	10	3	1	14	3	1		3	65
2010	11	12	6	16		10	3	1	12	6	2		2	81
2011	13	14	3	10	1	18	4	2	11	10			7	93
2012	4	9	3	4	6	7	4	1	4	4			1	47
계	74	81	15	104	36	124	53	19	123	43	9	1	72	754

다음 [그림 4]와 [그림 5]는 논문의 연구 주제를 보다 명료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등재지 논문의 연도별 연구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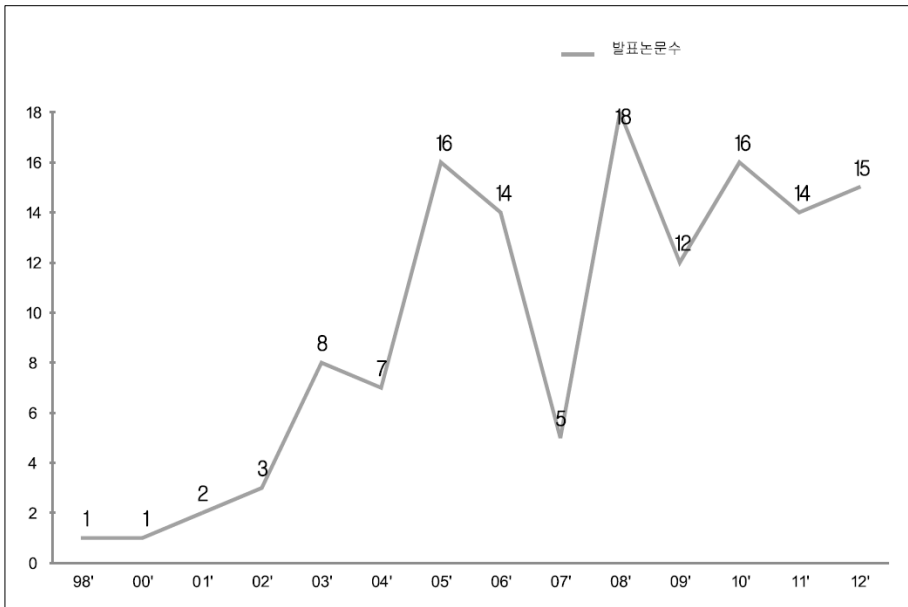


[그림 5] 등재지 논문의 연구주제별 연도 분포

등재지만을 기준으로 학술정보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재연구 분야는 영재들의 학습양식이나 인지적 성향에 대한 연구를 다룬 내용이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에 관한 연구와 영재들의 정서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 외에 언어/예술, 수학/과학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 주제를 보면 연구동향, 영재교육의 필요성, 일본의 영재교육, 평등교육, 러시아의 영재교육 등이 있다.

### 3. 영재교육 관련 박사학위 논문

영재교육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연구되어 매해 1~2편이 있으나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선포되고 2003년부터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한해 평균 12편 정도씩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영재교육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총 132편이 발표되었다. 연도에 따른 발표 논문 수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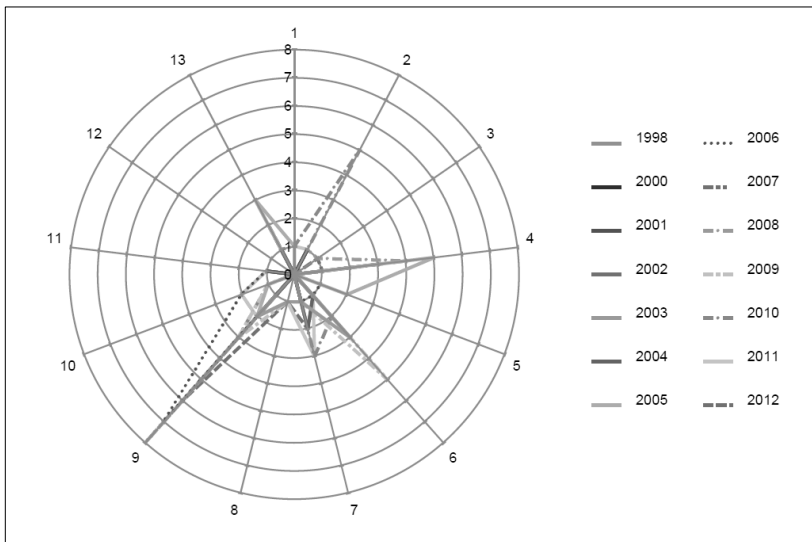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영재관련 박사 논문 수

<표 11> 연도 주제별 분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998							1						
2000							1						
2001		1									1		
2002							1		1				1

2003			1	3	1	1	2					
2004	1				1	2	2			1		
2005	1		5	2		2	2	1		3		
2006				1	1	1	7	2	1	1		
2007			3				1			1		
2008	1	1	4		3		8		1			
2009	1		1		5	1	1	3	1			
2010	1	5			2	3		3	1	1		
2011	1	1		2	1	3	1	2	2	1		
2012			1	1		1	2	1	6	1	2	
합계	3	10	2	17	3	17	18	4	37	7	5	10

<표 11>은 박사학위 논문을 연도에 따른 주제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판별, 정서, 인지가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주제로는 인식비교, 미성취 영재, 영재교육 분석, 부모교육, 뇌 기반 학업성취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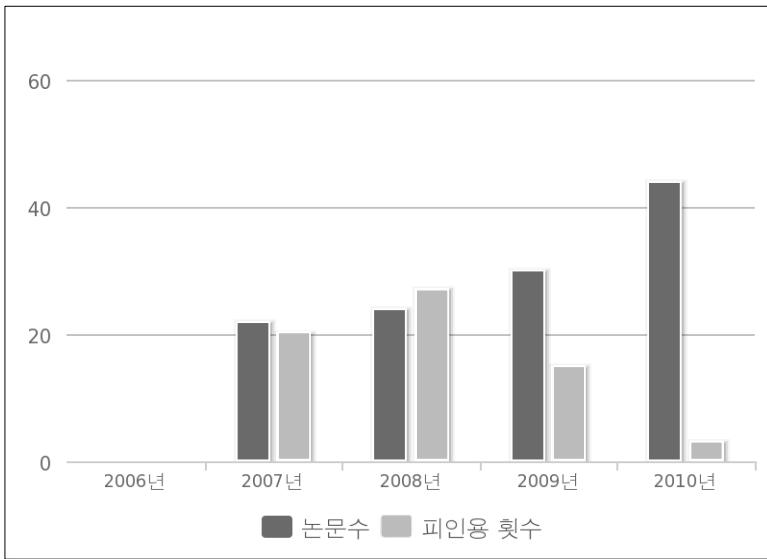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주제별 분포

지금까지 영재교육관련 연구의 발전과정을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는 당시 한국의 영재교육이 직면한 문제나 관심사가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변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영재교육에서 등재지인 「영재교육연구」를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였다. 근래 학술지는 등재지로서 뿐만 아니라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도 평가를 받고 있다. Impact factor

는 ‘특정기간 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한국연구재단 KCI 2010). 이외에 ZIF(자기인용제외지수)는 자체인용횟수를 제외한 2년간 인용된 횟수의 비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영재교육연구」의 영향력지수(IF)를 알아보면 2010년도에 영향력지수(IF)는 0.78, 자기인용제외지수(ZIF)는 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학술지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영재교육연구」, 「초등과학연구」, 「교육심리연구」와 「생물교육」 등이다. 반면에 「영재교육연구」를 가장 많이 인용한 학술지는 「영재교육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교육심리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와 「한국교육」 등이다. 「영재교육연구」의 최근 연도별 피인용 횟수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영재교육연구」 인용횟수

「영재교육연구」의 피인용 횟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연구의 주제가 다양하고 해당분야에 유용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에서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영재교육연구」, 학술 등재지 게재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분석의 결과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프로그램, 인지, 정서이다. 이는 어떤 매체를 보아도 동일하였다. 이렇게 특정 주제에만 연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주제에 집중되는 현상은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를 분석한 하종덕, 문정화, 박지현(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영재교육연구」의 경우 가장 많이 연구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명해 보면 단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특정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의 경우에도 수·과학 분야에 그 내용이 편중되어 있으며, 예술이나 언어, 정서, 사회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그 수가 미미하였다. 이렇게 효과 검증 연구가 끝난 이후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 보급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학술 등재지의 경우도 「영재교육연구」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 또는 효과를 검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내용 분야 역시 수·과학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표 4>의 등재 학술지 목록에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수학교육논문집」, 「초등과학교육」과 같이 수·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학술지에서 다수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역시 프로그램 효과 검증이 주요한 연구 내용이었다. 프로그램의 분야 또한 수·과학 분야의 프로그램이었다. 「영재교육연구」나 등재 학술지보다 다소 많이 연구된 것으로 분석된 언어·예술주제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언어·예술영재의 육성방안이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제언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언어·예술영재의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더불어 「영재교육연구」나 등재 학술지, 박사학위논문이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성인이 된 영재에 대한 추적연구 등 대상의 다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문·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방법으로 그 방법도 매우 한정적이어서 연구 분야의 학문적 내실 향상을 도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편중된 연구경향은 영재교육분야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좀 더 다양하고 폭 넓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제를 잡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많이 있다. 일례로 영재의 가족 관계 역학, 영재의 환경, 기관평가, 중단연구, 유아영재, 성인영재, 소외영재, 영재가 직면하는 문제와 스트레스, 영재의 신체 발달 특성 등 우리 사회에서 직시해야 할 주제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영재교육의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기 때문에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은 아직도 많다. 더욱이 세계가 날로 가까워지고, 학생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변화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불가피하기까지 하다. 특별히 연구되어야 할 주제로 첫째, 소외계층·소외영재·소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실 소외계층이라는 집단의 정의도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유아, 예술 분야도 소외 분야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미성취 영재,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 양면 특수아, 여성 과학자 등에 대한 특성과 요구,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설립과 효과 등을 알아보고 기획, 설치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영재교육 분야를 정립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둘째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많은 자원이 있다. 이러한 자원의 활용과 함께 영재들의 자원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자산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강화를 도모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협의의 프로그램만이 아닌 광의의 교과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 전 과정에서 판별, 속진, 변별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연계성이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영재교육과 일반교육과의 협조와 조화도 시급한 연구주제로 볼 수 있다. 일반교육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있을 때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교사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경향을 보았을 때 교사에 대한 연구가 증가추세로 나타난 것은 영재연구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교사에 대한 연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교사연수의 형태나 시간,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같은 조사가 다수였고, 교사의 교수법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영재교육에 있어서 학생은 물론 교사도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성과에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교수법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연구도 활발히 일어나 영재교육이 영재교육의 특성을 띤 질적인 변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섯째로 영재라는 개념에 대한 진중한 고찰이 있어야 하겠다. 외국에서 들여온 영재의 정의도 좋으나 우리나라에 알맞은 영재의 개념을 찾으려는 시도도 중요하겠다. 특히 영재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영재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성공과 관련된 학생 특성을 알아보고, 정서적 요구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영재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양화가 필요하겠다. 특히 영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질적 관리는 미미한 실정이다. 평가를 통하여 좋은 기관의 프로그램을 알리고 부족한 기관은 역량을 향상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단 연구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추적하여 그 요인들을 찾아서 영재교육 현장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영재교육 전문가의 의견과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재교육 분야에서 필요하고 요구되는 연구 주제를 선도하여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영재관련 연구들의 분석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특성으로 질적인 연구보다는 양적인 연구가 현저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에서 개인차나 인성, 사회성 등 세심한 부분을 연구하기에는 질적인 연구가 보다 적절한 경우가 있다. 심층적인 통찰을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신뢰성 있게 질적 연구를 하는 방법들이 발달하였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검색일: 2012. 10. 19)
- 한국영재학회 홈페이지 (검색일: 2012. 10. 19)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www.kci.go.kr/> (검색일: 2012. 10. 19)
- Ha, J. D., Moon, J. H., Park, J. H. (2009). Trends of Research on Gifted Education (1980s'-2007) in Korea. *英才教育研究*, 19(3), 477-501.
- Dai, D. Y., Swanson, J. A., & Cheng, H. (2011). State of Research on Giftedness and Gifted Education: A Survey of Empirical Studies Published During 1998-2010 (April). *The Gifted child quarterly*, 55(2), 126-138.
- Husen, T. (1984). Research and policymaking in educ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ducational Reasearcher*, 13(2), 5-11.
- Kerlinger, F. N. (1977). The influence of research on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Researcher*, 6(8), 5-12.
- NAG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White Papers & Position Papers* (2012, October 19). from <http://nagc.org/index2.aspx?id=375>
- Park, K. (2010). *Frontier in Education: Fostering Potential in Highly Abl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KERA International Conference 2010.
- Renzulli, J. S. (1991).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The dream, the design, and the destination. *The Gifted Child Quarterly*, 35(2), 73-80.
- University of Connecticut Neag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2012, October 19). from <http://www.gifted.uconn.edu/nrcgt/newsletter/june91/june9108.html>

= Abstract =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Gifted Education in Korea

Kyungbin Park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rends of research in the area of gifted education in Korea.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from 2006 to the present, which totalled 422 articles, were analyzed. Also, articles in the area of gifted education published in other academic journals registered in Korea Research Foundation totalling 228 were analyzed. In addition, 131 doctoral dissertations on gifted education areas were investigated. The articl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subjects, topic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studies looked into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as subjects, and the most researched topics of the articles were program development and curriculum, identification,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cognition. The methodology of majority of the articles were quantitative method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as are discussed.

**Key Words:** Research in gifted education, Research subject,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s, Trends in research

1차 원고접수: 2012년 11월 19일
수정원고접수: 2012년 12월 18일
최종게재결정: 2012년 12월 18일